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삶

성경: 롬6:3-5, 11:17-24, 고전6:17, 요15:1, 4-5, 롬12:4-5

I.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얻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산출과 건축을 위하여 사람을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다—엡3:16-17상, 4:16.

II. 신성한 경륜은 사람의 생명 안에 사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성취된다—갈 2:20.

III. 하나님께서 사람과 갖기를 갈망하시는 관계는 그분과 사람이 함께 접붙여져서 한 유기적 연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롬6:3-5.

- A.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이러한 하나는 유기적인 연결, 곧 생명—접붙여진 생명—안의 연결이다—3-5, 11:17-24.
- B.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어 사람과 하나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6, 2:7.
- C. 접붙임에 있어서, 비슷한 두 생명이 연결되고, 그 후에는 함께 유기적으로 자란다.
 - 1.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1:26.
 - 2. 우리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닮았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함께 접붙여질 수 있고 그 후에는 유기적으로 함께 자란다.
- D.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의 과정들을 통과하셔야 했다.
 - 1.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어 다윗의 씨가 되시고 다윗의 가지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요1:14, 마1:1, 눅3:8, 램23:5, 33:15.
 - 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잘리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3.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잘리신 후에 부활하시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하, 고후3:17상.
- E.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이다—요3:15, 15:4-5.
- F.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그 안에서 양자가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자라는—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 곧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영에 의해 살아야 한다—고전 6:17.
 -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후에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사시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갈2:20.
 - 2. 이러한 접붙임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그분 안에서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요14:20, 15:4상, 롬12:4-5.
- G. 접붙여진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다—요14:19하, 15:4상, 갈2:20.
- H.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사람의 생명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강화되고 높여지고 풍성하게 된다—롬12:2, 엡4:23, 고후3:18.

- I.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참 포도나무로 상징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우리는 상호 내재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요14:20, 15:1.
 1.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상호 내재한다. 포도나무는 가지들 안에 거하고 가지들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4-5절.
 2.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한 합당한 관념은 상호내재, 곧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갈2:20, 고전1:30.

IV. 로마서 12장은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연결하는 생명,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에서 몸을 말한다—4-5절.

- A.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 중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높은 중점이자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의 궁극적인 항목인 몸이다—고전12:12, 27, 엡1:22-23, 4:4, 12, 16, 5:23, 30, 골2:19.
- B.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몸으로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롬12:4-5.
 1.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2. 이러한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생명 안에서 하나되게 한다.
 3. 몸은 조직체나 사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생명의 연결로 산출된 유기체이다—고전6:17, 12:27.
- C. 몸 안에서 합당하게 유기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롬12:4-5.
 1. 몸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2. 몸의 실지성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 있는 것이다—요15:4-5.
- D. 우리는 우리 존재의 세 부분 모두를 사용함으로 몸의 생활을 실현하고 실행해야 한다—롬12:1-2, 11.
- E.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갖지 않고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혼이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불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지적으로 말해서 몸 밖에 있는 것이고 몸을 떠나 있는 것이다.
- F. 몸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알고 분량 밖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몸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3절, 엡 4:7, 16.
- G. 몸은 하나이므로 지체들은 머리를 의지할 뿐 아니라 서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전12:12-27.
- H. 몸을 아는 체험은 교통의 문제이다. 교통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몸을 안다는 것을 증명한다—요일1:3, 고전1:9, 10:16.
- I.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유기적인 지체들이 되고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빌1:20-21상, 롬12:4-5.